무한도전, 군대 · 바캉스로 멤버들 들었다 놨다

'진짜 사나이' 마지막 이야기
'안 개의치 않은 바캉스' 펼쳐져

바캉스를 보내주겠다며 멤버들을 군대로 보낸 무한도전이 진짜 바캉스를 보내주는 것으로 멤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빅 재미를 안겼다. 큰 화제 속에서 방송된 진짜사나이 특집이 뿌듯한 퇴소식으로 마무리 됐고, 제작진은 바캉스가 걸린 퀴즈쇼를 열어 멤버들과 스태프들의 막강 입담과 예능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무한도전의 요물 같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한 회였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리얼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 539회는 '진짜 사나이' 특집 마지막 이야기와 '안 개의치 않은 바캉스'가 펼쳐졌다.

3회 동안 박명수의 하드캐리 속에서 함께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했던 멤버들은 퇴소식으로 뿌듯한 순간을 맞이했다. 모두가 가슴 벅찼고 군대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하며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등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렇게 바캉스를 빌미로 군대를 보냈던 제작진은 멤버들에게 진짜 바캉스를 보내주겠다며 퀴즈를 풀게 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고, 퀴즈 난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는데 제작진의 의도는 한 문제를 푼 뒤 바로 드러났다.

'안 개의치 않은 바캉스'는 우승자에게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자신의 스태프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첫 번째 문제였던 '블라인드 채용'을 유재석이 맞힌 가운데 반전이 있었다. 바로 스태프가 멤버들이 이 문제를 맞힐지 못 맞힐지 예상하는 텔레파시가 진짜 대결 방식이었던 것.

퀴즈 대결은 멤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스태프가 멤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 유재석의 스태프는 유재석이 무조건 맞힐 것이라고 신뢰하는 '광신도'였다. 반면에 하하와 양세형의 스태프는 무조건 못 맞힐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두 사람의 스태프는 초지일관 두 사람이 맞히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오답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를 맞힐 때마다 주어지는 인형이 쌓일수록 하하와 양세형의 오기도 쌓였다.

무조건 틀릴 것이라는 하하 스태프의 올곧은 선택은 대부분 들어맞았다. 결국 하하를 잘 아는 스태프의 '텔레파시 맹활약'으로 하하가 우승했다. 여행지를 두고 2라운드 대결이 벌어졌다. 하하와 매니저가 하하의 생일, 하하가 평소 제일 많이 하는 말, 하하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등에 대해 같은 답을 써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하하에 대한 스태프의 의도하지 않은 '디스'가 큰 웃음을 선사했다. 하하의 매니저는 하하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로 "똥 멍청이"라고 폭로해 하하를 당황하게 했다.

하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매니저와 달리 매니저의 생일과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맞히지 못해 사과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대결 결과 하하와 스태프는 제주도 여행권을 얻었다.

'안 개의치 않은 바캉스' 특집은 멤버들 못지않은 스태프의 재미있는 입담과 멤버들의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시청자들을 웃게 했다. 특히 퀴즈의 정답인 휘게라이프, 팬아저(=팬 아니어도 일단 저장이란 뜻의 신조어) 등은 포털사이트 검색어까지 점령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이 같은 관심과 호응은 시청률로도 이어졌다.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수도권 기준 13.1%를 기록하며,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유일한 두 자릿수 시청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동시간대 1위는 당연지사. 특히 광고주들의 주요지표인 2049 시청률은 무려 시청률 11.9%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드라마, 시사, 교양 등 토요일에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오늘 군대부터 퀴즈까지 꿀잼이었다", "박명수가 군대에서 레전드 찍었다", "무한도전은 스태프도 웃기다", "이번 군대는 박명수옹이 제대로 웃겼다", "박명수가 힘들면 웃기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통했다", "박명수 24년 개그인생 중 제일 웃겼다", "진짜사나이 특집 1년에 한 번씩 하면 웃길 것 같다"는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

한편,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양세형 등 다섯 멤버와 함께하는 무한도전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욱 좌충우돌한 도전을 통해 한 층 더 진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JTBC '품위있는 그녀'의 품위 넘치는 시청률

'품위있는 그녀' 배우들의 열연이 주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22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12회는 9.5%(닐슨 코리아 유료가구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자체 최고 시청률이던 11회 9.1%보다 약 0.4% 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2%까지 치솟았다.

전국 기준으로도 8.95%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12회에서는 우아진(김희선 분)과 그녀의 어머니 금여사(문희경 분), 딸 안지후(이채미 분) 삼대의 가슴 아픈 눈물과 함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우아진은 남편 안재석(정상훈 분)의 내연녀 윤성희(이태임 분)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감행해 그토록 안재석이 원하던 상생으로 무개념 불륜 남녀와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또한 어머니와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 했던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된 금여사가 엄마의 이름으로 뻔뻔한 윤성희 모녀를 처절하게 응징하면서 안방극장에 통쾌함을 선사해 사이다 모녀에 등극한 것.

특히 우아진과 금여사, 안지후 세 사람의 눈물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든 시련을 감내하던 우아진은 금여사와 자신보다 더 속 깊은 딸 안지후의 위로에 눈물을 흘렸고 서글픈 그녀의 울음에 두 사람도 같이 눈물을 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다.

박복자(김선아 분)와 박주미(서정연 분)의 숨 막히는 기싸움은 병원에서도 계속됐다. 안재구(한재영 분)의 칼부림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박복자를 찾아와 천막 붕괴 사고의 배후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할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박주미는 두 사람의 끝나지 않은 갈등을 암시, 눈빛만으로도 긴장감을 높였다.

장성수(송영규 분)의 조강지처 차기옥(유서진 분)과 내연녀 오경희(정다혜 분)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지난 주 살벌한 파스타 어택으로 강렬한 전쟁을 벌였던 두 사람은 임신과 내연관계로 눈물 젖은 대화를 이어갔고 남편의 아이라면 자신이 키우겠다는 차기옥과 왜 여자만 책임을 져야 하냐는 오경희는 각자의 처지를 한탄하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자극했다.

'품위있는 그녀' 12회는 김희선(우아진 역)을 위해 나선 문희경(금여사 역)의 몸을 던진 복수극으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 품위있는 난투극 삼단 콤보를 완성했다. 더불어 김선아(박복자 역)와 서정연(박주미 역)의 날선 대립은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으며 브런치 모임 멤버들과 남편들의 생동감 넘치는 에피소드가 흥미를 더했다.

한편, 스펙터클한 전개로 주말 밤을 책임지고 있는 JTBC 금토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는 매주 금, 토 밤 11시에 방송된다.

'토르: 라그나로크' 예고편 공개…토르vs헐크, 최고의 대결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어벤져스의 세계를 새롭게 확장시킬 시리즈 사상 최고의 대결이 담긴 메인 예고편을 첫 공개했다.

'토르: 라그나로크'는 '토르' 시리즈의 3번째 작품으로, 위기에 처한 아스가르드를 지키기 위해 마블 최초이자 최강 여성 빌런 헬라, 그리고 어벤져스 옛 동료인 헐크와의 대결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토르의 위기를 다룬 이야기.

CGV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 최초 공개된 '토르: 라그나로크' 메인 예고편은 시리즈 사상 최고의 스케일과 압도적인 비주얼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내 망치를 잃었는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라는 토르의 의미심장한 대사로 시작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진 토르와 아스가르드의 운명,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자취를 감췄던 헐크의 등장과 이어지는 토르와 헐크의 숙명적 대결은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공개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무한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르(크리스 헴스워스 분), 로키(톰 히들스턴), 헐크(마크 러팔로), 헬라(케이트 블란쳇), 그랜드마스터(제프 골드브럼), 발키리(테사 톰슨) 등 '토르: 라그나로크'의 주요 캐릭터들을 차례로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중에서도 마블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이자 최강의 여성 빌런 헬라 역을 맡은 케이트 블란쳇의 놀라운 변신과 카리스마가 단연 돋보인다.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투신들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이어질 사상 최대 규모의 액션을 자랑하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전망이다.

한편 '토르: 라그나로크'는 지난 4월 선보였던 티저 예고편이 마블 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번 메인 예고편 역시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영화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토르의 파격 변신, 헐크와의 숙명적 대결, 마블 사상 최초의 여성 빌런 헬라의 등장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을 담아낼 '토르: 라그나로크'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마블 스튜디오를 총괄하고 있는 케빈 파이기는 최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마블 스튜디오는 22편의 작품을 통해 전력질주 해왔다. 3편의 '아이언맨', 3편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그리고 3편의 '토르'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마블 영화의 세계관이 상당 부분 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밝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어벤져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확장을 예고하며 기대를 높인 '토르: 라그나로크'는 10월 말 개봉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음력 6월 2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금전관리 잘하라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소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호랑이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토끼띠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뱀띠 41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말띠 42년생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원숭이띠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닭띠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개띠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돼지띠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